

# 다구를 찾아서

5 다구의 예술성



## 흰 거품 눈처럼 엉겨 꽃으로 피어나다

당대에는 음다(飲茶) 풍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탕법과 다구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당대가 차의 탕색과 찻잔의 조화를 감상하는 예술적 안목에 눈 뜨기 시작한 시기라면 송대는 다구의 예술성을 극대화한 시기이다. 이러한 요구는 도자기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송대에는 장시성(江西省) 징대전요(景德鎮窯)의 백자, 저장성(浙江省) 룡취안요(龍泉窯)의 청자와 같은 청백유자기, 마차 얼음에 금이 간 듯한 빙결문(氷裂紋) 자기로 유명한 가요(哥窯) 등이 있었지만, 그 중 건요(建窯)에서 생산하는 흑유잔(黑釉盞)을 최고의 찻잔으로 꼽았다.

을 잘 드러내는 검은색 잔을 선호했다. 당대의 탕법이 솥에 차를 넣고 끓여서 나눠 마셨다면 송대의 탕법은 각자의 잔에 직접 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다발(茶沫)을 만들어 마셨다. 먼저 차연으로 가루를 내 체에 쳐서 더욱 고운 찻가루로 만들었다. 이것을 뜨겁게 달린 찻잔에 넣어, 끓인 물을 붓고, 차선으로 휘저어 백색 거품-말발(沫勃)을 일으켜 마신다. 백색의 말발이 흘러내리는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 또한 차를 마시는 즐거움의 하나였고, 건요의 토호잔은 말발을 가장 돋보이게 하는 최상의 찻잔으로 선택됐다. 이렇게 차를 내는 일련의 과정과 감상하는 기쁨은 문인과 화인들의 시제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송 건요흑유도호문자잔(建窯黑釉兔毫紋茶盞), 일본 동경국립박물관 소장, 높이 7.0cm, 지름 12.2cm, 바닥 지름 3.9cm.

복건성 건양현 수길진(福建省 建陽縣 水吉鎮)에 위치한 건요는 당 말부터 청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자기생산지로 유명했다. 건요는 원래 중국 강남의 일개 민요(民窯)에 불과했으나, 송대에 들어와 황실용 찻잔을 만들게 됐다. 건요 흑잔(黑盞)의 경우 표면에 토기털과 같이 은색 광택의 결정유가 나타나는 토호잔(兔毫盞)이 가장 대표적인 생산품이었다. 건요에서 만들어진 찻잔을 지칭하는 말로는 건잔(建盞) 이외에도 건구(建盞), 흑건(黑建), 자건(紫建), 자구(紫盞), 오니건(烏泥建), 자니(紫泥)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다록(茶錄)>을 저술한 채양(蔡襄, 1012-1067)은 건안의 토호잔을 으뜸으로 여겼고 직접 소장했다고 알려진다. 그의 시<사다(試茶)>에는 토호잔에 흘러 내리는 말발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兔毫紫瓊新  
蟹眼清泉煮  
雪凍作成花  
雲開未垂縷  
願爾池中波  
去作人間雨

새 토호문의 찻잔에 계눈의 맑은 물로 (차를) 다리네. 눈처럼 엉겨 꽃처럼 흰 말발 희디흰 말발, 쉬이 흩어지지 않는구나. 바라노니 잔속의 흰 구름(말발)아 떠가서 세상에 단비가 되어라.

(朴東春譯)

백기란 bdaol@hanmail.net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건이야기

26 범어사 염화실 돌담 아래서

어느 해 봄이었다. 개울의 물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 얼었던 땅엔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남쪽의 땅은 더 일찍부터 봄이 와있었다. 오랜만에 찾은 부산 범어사에도 봄의 기운이 가득했다. 자연은 한 순간도 쉬지 않았던 것 같다. 염화실 돌담 위엔 무겁던 눈이 녹고 하얀 매화가 피어 있었다. 하얀 매화가 쏟아지고 있는 돌담 밑으로 스님 두 분이 반가운 합장 인사를 나누며 지나갔다. 오랜만인 것 같았다. 짧은 인사 속에 서로의 오랜 세월을 묻고 있었다. 다시 만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다시 만나게 된다. 인연으로 꽃으로. 누구의 말씀처럼 조금만 더 따뜻해지고 조금만 더 친절해질 일이다. 한 순간인 이 짧은 순간에도 수 천 개의 꽃송이가 피고 있다.

## 옛 판화의 세계 나계에서 법을 일으키다 (螺溪興教)

송나라 때 오월의 총이왕이 어느 날 영가 집을 열람하다 의문점이 생겨 천태산 회적 스님에게 물었다. 회적 스님이 답하기를 지자 대사의 현묘(玄妙)한 법문인데 교적이 흩어져 해외에 있게 됐다고 설명하자, 오월 왕은 10명의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 교전을 구해오게 했다.

삼하는 아름다운 전각 속에서 회적 대사와 오월왕이 대화하는 모습과 함께 사신을 파견해 일본국으로부터 경전을 모시고 오는 상황을 표현했다. 회적(叢寂) 스님은 영가 호(湖)시 출신으로 어려서 출가해 법화경을 한 달 만에 통철하게 됐고 천태산에 들어가 천태지관을 배웠는데 곧바로 깨었다고 한다.

안녹산(安祿山)이 난중국 당나라 중기인 755-763년 안녹산과 사사명 등이 일으킨 반란을 일으키면서, 천태종의 교적은 회창(會昌)년간(會昌年間)에 불살라지고 사원은 허물어지게 됐다. 회적 스님은 이를 늘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어느 날 총이왕은 어떤 인연으로 영가 집을 열람했다. 거기에는 현각 스님과 함께 제수된 네 사람이 이것에 머물며 재를 울린

일이 있다고 했다. 그래서 총이왕은 그 연유에 대해 덕소 국사에게 물었다. 그러자 덕소 국사는 이 같이 대답했다.

“이것은 교의 내용이니 천태산 회적 스님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에 왕은 곧 회적 스님을 불렀고, 스님에게 이 내용에 대해 물어봤다.

“이것은 지자 대사에게서 나온 현묘한 법문입니다. 당나라 말기에 나라가 시끄러워지면서 교적이 흩어지고 허물어진 까닭에 이 모든 글 가운데 많은 것이 해외에 있게 됐습니다.”

이에 오월왕은 10명의 사신을 파견해 일본국에 가서 교전을 구해오게 했다. 그들이 돌아오자 왕은 이를 위해 절을 세우고 ‘정혜사’라 편액(編額)했다. 스님에게는 ‘정광법사’라는 법호를 하사했다. 이때부터 천태종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판화는 고려와 일본에 흩어져 있던 천태종 교적을 모아 중국의 천태종이 다시 흥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의 교의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하고 있음을 알려 준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나계흥교(螺溪興教), 불암사판 1673년간행, 반곽(半郭) 27.2×18.0cm

◆ 한국불교박물관 (대구엑스포, 3월 18일부터 ~ 21일까지) 에 오시면 직접 상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수제화 고무신코만행화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진회색

**최고의 선들**

지압·동갈창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자연색

지압동갈창

**사계절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망사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진회색, 검정

**조각무명 3목**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20~280mm (5mm단위)
- 색상 : 회색

**3-1밴드**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 회색

**3-1끈**

- 가격 : 90,000원
- 규격 : 215~285mm
- 색상 : 검정, 회색

가장 20,000원 (사이즈: 230~280)

99% 실리콘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선칠용맹 정진 안내

(7일 용맹정진)

- ◆ 결 제 : 2010년 3월 21일 오후 7시
- ◆ 해 제 : 2010년 3월 28일 사시
- ◆ 방부비용 : 15만원
- ◆ 입금계좌 : 1407-02-022380 농협

선칠수행도량  
**묘실상선원**  
대전시 동구 중동 47-18  
☎ 042)585-0778

## 한국근본불교조계종

### 경남교구 본산 주지 공개모집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제 14교구 경남 종무원 청정사 주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 ◆ 자격 : 법당 10년이상 비구, 비구니로 한국근본불교조계종 종도로써 활동하며 청정사 중창불사에 전념할 수 있는 스님
- ◆ 대우 : 종신 주지 및 사자상승보장 (종단에 소정의 후원금 지급 요)
- ◆ 자산 : 법당 30평, 요사 20평, 선방 50평, 산신각, 석불, 석탑 등 대지 630평, 임야 7400평 등

**총무원장 의륜 합장**

- 주 소 : 경남 합천군 청덕면 초곡리 820번지
- 문의전화 : 011-352-7751